##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4-05

아나키스트연대

# 차례

1.	1. [자본주의와비인간적인유통세계]	
2.	2. [언제나와같은사기극]	
3.	3. [훌륭한자본주의적제국주의]	

#### 1. [자본주의와비인간적인유통세계]

2021 년 3 월 23 일수에즈운하에서발생한에버기븐호좌초사고에의해 422 척의유통선박의발이묶여있었다. 이후 29 일에에버기븐호는준설기의도움으로완전부양에성공했고이후수에즈운하는다시정상적으로 개방되었다. 하지만에버기븐호는이집트에서떠날수없었다. 왜냐하면에버기븐호는이집트정부의피해보상을위한인질이되어야하기때문이다. 물론자본주의경제논리상이집트정부의행동이잘못된것은전혀없다. 이집트정부입장은사고의원인에강풍과같은수에즈운하자체와관련된것이아니라선박의기술적인결함이나사람의실수가있었다고해석한다. 그리고이를증명하려면배를함부로놔줄것이아니라잡아두고조사를해야할필요성을느낄것이다. 이렇게까지해야하는이유는자칫하면사고의직접적인원인과더연관이있는선주'쇼에이기센'이나선박운용사'에버그린'대신 10 억달러가량의배상금액을책임져야할수도있기때문이다.

잠깐대만 vs. 일본같은국가주의적대결구도상상이나밈질은그만두고실제로발생하고있는피해를간단히, 대신알아보기쉽게짚고가자. 우선앞서말했듯이 422 척의유통선박의발이묶여있었다고했는데이런선박하나에나름제각각이지만수천개의컨테이너를적재하고한컨테이너에 20 톤넘게들어간다. 즉, 수에즈운하에발이묶여있던수많은유통선박은지구각지역의항구에다다라서수많은공장과산업현장에어마무시한양의각종자원을조달해야했었다. 그래야했었는데그선박들은약일주일, 상황에따라이주가깝게발이묶였고여기서원재료등을조달받지못한수많은공장과산업현장이계획대로생산을못하여심각한피해를입었다. 이피해는단순히그만큼수익을못냈다정도가아니라예정과다르게생산에차질이생겨서계약위반등으로배상금액을떠맡게되었을수도있다는것이다. 그리고이과정에서몇몇기업에서는파산및실직뿐만이아니라극단적인선택을하게되는사람들도있었을것이다.

이렇게따지고보면이집트정부가요구하는 10 억달러가량의배상금액이납득이가긴할것이다. 그많은배상금액은이집트정부가형식적으로는홀로독차지하는것이아니라수에즈운하에의존하던수많은유통업체와유통사용자들에게돌아갈것이다. 하지만필자는과연이것이옳은것인가묻고싶다. 선주와선박운용사에게책임을묻는것에대해의문을품는것은아니다. 그들이끼친피해는자본주의적으로해석하지않아도어마무시하게크다는것은사실이다. 내가묻고싶은것은과연모든사사로운것까지자본주의와자유시장경제의원리에따라가치가부여되고, 그래서단순히예정대로생산을못했다는이유로누군가를빚의노예로만들거나죽음으로까지내모는이거대한도박장이과연바람직한것이냐는것이다.

잠시주관적인상상을펼쳐이야기하자면, 만약전세계가필자가꿈꾸는대로아나키즘적코뮌으로형성된거 대한공동체라면, 위와같은문제가생긴다면어떻게해결할것인가? 하나확실한것이라면적어도유통선박에게 서물자를받아서생산을해야했던공장관계자들에게어마무시한빚을떠넘기거나실질적인사형을내리지는않을것이다. 그와같은코뮌, 혹은코뮌조합을유지하는민중은모두생산실패의원인이그들에게있지않다는것을 알고, 자신들도비슷한처지에겪을수도있다는것을알기에그들에게책임을묻기보다는생산실패의결과, 즉일시적빈곤을담담히모두가분담하여수용할것이다. 그리고이와비슷한원리는에버기븐호에의해정체되었던모든유통선박관계자들에게도해당될것이다. 마지막으로에버기븐호의관계자들은직접적으로책임이있기에추후사고방지를위한재훈련및패널티등이있을것이다. 그러나앞서자본주의체제에서부여되는책임감에비하면, 수많은빚의고통과죽음에대한책임에비하면가벼울것이다. 모두가잠시빈곤을분담하게되어불편을겪게된일에대한책임은전자에비하면짊어지기쉬울것이다. 많은이들은이를듣고이상주의적이라고말할것이지만필자는이것이이상주의적이라생각하지않는다. 이것은올바른것이다. 아나코코뮌주의는인류의미래에필수적인것이다.

"" 수에즈운하정체사태끝" 10 억달러배상, 이제…": https://www.ytn.co.kr/\_ln/0134\_202104041043517217

### 2. [언제나와같은사기극]

4.7 재보선선거가눈앞으로다가와있다. 특히주목받고있는곳은단연서울시장선거일것이다. 반동양당 의후보들이제각기각자의서울을외치며투표를독려하고있지만이소위민주적선거라는체제가언제나민중에 게몇년에한번몇명의사기꾼중자신을지배할독재자한명을택할권리를줬을뿐인사기극이었듯이번선거또한 다른한편의사기극에불과하다.

부자들의배를불리고자용산에서의참사를불러일으킨오세훈이나경제민주화를내세우며탄력근로제확 대를주장했던박영선의이중성등후보개인의추악함을말할수수도있으나중요한점은선거따위는민중의삶을 개선시킬수없다는체제본연의문제다.

어느당이얼마의표를받아집권을하던그들은민중을대변할수없다. 그들이민중을소위대변한다는정치행 위는결국모두자의에근거한것일뿐이다. 민중은그들에게책임을물수도, 통제할수단도없다. 하물며가장강 력한압제의주체인자본은그들조차통제하지못하는대상이며민중의직접권력행사는애초부터막혀있다.

이번재보궐도, 서울시장선거도마찬가지다. 쪽방촌의주민들에게집을줄수도, 농성하며투쟁하고있는노 동자들을도울수도없다.

추악한반동양당후보를넘어저부패한권력을탐하는모든이들은민중의대안이될수없다. 민중에의한직접 행동만이답일따름이다.

" 사전투표율 20.54% 역대최고치"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550

#### 3. [훌륭한자본주의적제국주의]

MBC 와국가기관을비롯하여수많은자본들이자신들의행위를비호하기위해온갖논리들을갖다붙이고있다. 미얀마항쟁에있어군부에포스코는결코도움을준것이아니라느니, 미얀마에서철수하는것은어렵다느니하는해명을기업은물론이거니와공영방송인 MBC 에서조차펼치고있다. 사실이는어찌보면너무나도당연한수순이다. 국가권력은자본의하수인아니던가. 그들이비호해야할것을비호하는것뿐이다.

그들의자기위로는너무나도어설프고허탈해, 보는우리로하여금실소를금치못하게만든다. 군부에게배 당을멈추고있었다던가, 철수를하지는못한다던가하는말은결국'아무튼도우려는의도는아니었지만, 돕고 는있는건데, 아무튼도운건아님.'이라는말을돌리고또돌려서표현하는것이나다름없기때문이다. 우리는그 렇게필사적으로자신들을비호하는미얀마노동자들을착취하는한국기업들에게묻고싶다. 진정으로당신들 은미얀마군부를돕지않았나?

그들이그어떤미사여구를붙여군부와의관계성을거부한다한들, 미얀마에서여전히돌아가거나활동하고 있는한국기업들은결국미얀마군부의'묵인'혹은'허가'아래에서움직이고있다. 포스코와한국기업들이미얀 마군부를성토하고, 그들과함께일하지않겠다선언한적이라도있던가? 그들은'기업활동을위해어쩔수없다' 라고변명하지만, 우리는안다. 그것이그들의본질이라는것을. 인민의자유를향한투쟁과연대는, 그들에게 있어돈이되지않는, 그리고리스크가매우큰일이란것말이다.

이미드러난사실을부정하는것도비웃음만나올뿐이다. 그래서민아웅흘라잉과유착, 이전부터없었나? 예전부터그들과거래하고있던것은다사라지는가? 그래서지금미얀마에서사업안하고있나? 그들의투자와 사업이미얀마군부가아니라미얀마인민에게돌아가고있나? 전혀아니지않은가?

박수를보내자. 포스코와대한민국은훌륭한제국주의국가의첨병이자그자체가되었다. 이제너무나도확실하지않은가? 미얀마던대한민국이던, 모든정부기관과국가권력은자본의하수인이자대변인이란것말이다. 그리고그자체로자본주의적제국주의에복무하고있다는것말이다.

"" 한국기업이미얀마군부의돈줄?" 속사정은…":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28811\_34880.html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4-05 2021 년 04 월 05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99059018

kr.theanarchistlibrary.org